

통일 칼럼

사라진 北 엘리트들

현장 시찰을 이어가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엔 은천 휴양 단지를 찾아 따뜻한 지도자상을 연출했다. 한편으론 고위 관료에게 거친 언사로 면박을 주고 현장에서 해임하기도 했다.

또 김 위원장의 총애를 얻었던 최측근도 조용히 사라지는 등 내각의 인적쇄신이 잇따르고 있다. 관료사회의 기강 잡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다.

권력 안정을 노린 김정은의 용인술과 체제 안정을 위한 일련의 행보들이 관심사다. 시찰 장소는 함경북도 경성군의 은포근로자휴양소. 지난 2018년 방문 당시 불고기 수조보다 못하다며 관리 부실을 질책하면서 대대적인 리모델링이 진행됐다.

고급스러운 욕장과 현대적 객실,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조경 등이 마치 고급 리조트를 연상케 한다. 개성을 지시한 뒤 이를 잘 이행한 곳을 찾아 칭찬한 것은, 관료사회의 긴장감을 유지하고 기강을 잡으려는



정복규  
논설위원

의도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합흥 통성기계연합기업을의 현대화 준공식에 참석해 시찰하는 과정에 담당 내각부총리를 현장에서 해임했다. 공장 현대화 과정이 초기 공정부에서 어려웠고 60여 건의 문제점이 제기됐는데, 그 책임이 내각부총리에게 있다면서 경질했다.

김정은은 주기적으로 6개월에서 1년, 때로는 2년에서 3년 정도 극단적인 총력 요법을 쓴다. 최룡해 같은 경우에는 2년 공장에 보내서 일을 시켰다.

끊임없이 관료들에게 긴장을 불러

넣음으로써 충성을 유도하는 것은 북한 정권의 독특한 용인술이다. 해임이 공개된 부총리와는 달리 소리소문 없이 사라진 고위 관료들도 있다.

대표적 인물은 북한 권력의 최상단, 정치국 상무위원 자리까지 꿰찬던 김덕훈 내각총리다.

그간 김 위원장은 김덕훈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 세우는가 하면, 측근들에게만 선봉하는 가족 토크트를 수여하는 등 각별히 총애했다. 하지만 김덕훈 내각총리는 지난해 12월 집원회의 이후 공개석상에서 자취를 감췄다.

장관 격인 북한 화학공업상도 김철하에서 김선명으로 교체된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교체 경위나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김덕훈이 사라진 시기를 봤을 때 지난해 말 경제 엘리트에 대한 대대적인 문책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김정은 집권 초기처럼 유행 속칭의 수순은 밟지 않을 거란 전망이다. 김정은은 정권 초기에는 유행 속칭이 많았다. 2013년까지 집권 후 약 3년, 4년간 대략 차관급 이상 200명 이상을 유행 속칭했다.

이후로는 주로 회견문 인사(문책 인사 재기용)다. 북한의 인적 쇄신은 또 다른 분야에서도 포착됐다. 김정은의 경호·호위 주요 조직 4곳 중 3곳의 책임자를 전격 교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 위원장과 그 가족을 밀착 경호하는 호위처장과 김 위원장의 해외순방 시 경호를 담당하는 국무위원회 경위국장, 또, 관자와 금수산만, 김덕훈 내각총리는 지난해 12월 집원회의 이후 공개석상에서 자취를 감췄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ICE 동계올림픽 파견' 반대하는 이탈리아 시위대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이탈리아 로마 주재 미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대가 오는 8월 개막하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동계 올림픽에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의 파견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내 · 외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독자제언

확인하는 습관으로 보이시퍼싱 예방

보이시퍼싱 사기 범위는 기술 발전과 함께 AI 음성 합성, 가짜 앱 설치, 발신 번호 변조 등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 단순 전화사기에서 벗어나 정부지원금, 환급금 안내 등 사회적 이슈를 미끼로 한 맞춤형 피싱이 확대되고 있으며, 피해자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관공서 행정 전화번호를 이용해 공무원 및 수사기관 직함을 도용하고 위조한 공문서 및 신분증을 보여주며 계좌가 범죄에 이용돼 돈을 안전계좌로 옮겨야 한다 등으로 유도에 급히 돈을 이체하거나 앱 설치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사기 피해 사례가 많다.

보이시퍼싱의 가장 큰 특징은 '긴박감'을 조성한다는 점이다.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 자녀가 사고를 당했다. 지금 당장 조치하지 않으면 법적 불이익이 있다는 말로 판단할 시간을 주지 않아 이성적인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상대의 지시에 따르기 쉽다.

예방의 첫걸음은 '의심'이다.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전화나 문자로 계좌 비밀번호, 인증 번호, 현금 인출이나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전화를 끊고 가족이나 지인, 또는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 또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속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스마트폰에 설치된 보안 설정과 스캔 차단 기능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고령층과 청소년 등 정보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늘고 있어 가정과 지역사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가족 간에 보이시퍼싱 사례와 예방법을 자주 공유하고,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보이시퍼싱은 개인의 부주의만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할 범죄이다. 신서윤 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경위

사설

교동미술관 민화전

2026년 1월 13일부터 2월 22까지 교동미술관 2관에서 민화의 대가故 박수화 작가의 작품을 비롯해 김완순, 최만식 작가의 작품 10여 점을 한자리에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는 각기 다른 시각으로 해석한 민화의 세계를 선보인다. 특히 김완순 작가의 '십장생도', '책가도', '화조구자도' 등 전통적인 소재를 정교하게 살려낸 작품들과 더불어, 최만식 작가의 '일월오봉도'와 같이 회화 기법(Acrylic on canvas)을 접목해 민화의 현대적 확장을 꾀한 작품들을 전시한다.

전시의 핵심 키워드는 '은교지신(溫故知新)'이다. 옛 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 새로운 것을 안다는 뜻이다.

단순히 과거의 복제에 그치지 않고 현대적인 색채를 더해 민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또한,

작품 속에 담긴 무병장수와 복(福)의 기원을 새해를 맞이한 관객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그림 속 해와 달은 매일 떠오르고, 산과 불은 그 자리에 머물며, 꽃은 해마다 피고 진다. 이번 전시는 어제도, 모란도, 책가도, 십선도, 십장생도 등 궁중의 권위와 장수를 상징하는 그림부터 개인의 생활과 소망을 담은 작품까지 민화의 다양한 형식과 의미를 한 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민화는 우리 민족의 가장 솔직한 미의식이 투영된 예술이다.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정신으로 이번 전시를 통해 시대의 결을 잇는 전통 미술의 생동하는 생명력을 느끼길 바란다. 특히 민화의 정신이 새로운 에너지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2026 전북여성 신년인사회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여성가족재단은 지난달 5일 전북 여성의 힘찬 출발과 대도약을 다짐하는 '2026 전북여성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여민유지(與民由之): 처음과 끝, 도민과 함께!'를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전북도정의 도전과 성장 과정에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연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전북여성가족재단은 2023년 7월 출범해 여성·가족 정책의 연구와 실행을 총괄하는 컨트론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재단은 출범 3년 차를 맞는 올해, 분야별 전문가 협력체계 강화와 가족정책 사업 확대 등을 통해 정책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전북여성가족재단은 여성·가족 정책의 연구와 실행을 총괄하는

컨트론타워로, 2023년 7월 출범 이후 성평등 정책 연구 및 제도 개선,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가족친화 및 돌봄 기반 확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성과를 냈다.

출범 3년 차를 맞는 재단은 정책 연구의 전문성은 물론, 현장과 연계한 실질적 실행 역량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으로, 재단은 이번 제2대 원장 임명을 계기로 재단의 역할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 신임 원장은 "현장경험과 그동안 쌓아 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가족정책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키겠다"며 "도와 시·군,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분야별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도민 체감형 정책발굴과 실행으로 전북 여성·가족정책의 미래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갈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